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대구주보

ARCHDIOCESE OF DAEGU WEEKLY BULLETIN

2026.09 **27**

[가해] 제2557호

2025~2026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마태 21,29)

오늘의 전례

입당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에제 18,25-28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 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2독서 필리 2,1-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 21,28-32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습니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 대구대교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제2차 국제준비회의의 DID 엑스포 참여 (2026.9.15)



소리주보
QR코드

†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일의 강론

세천성당 주임 | 최호 요한보스코 신부



사랑의 표현법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사랑을 5가지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1) 주고받는 말, 2) 함께하는 시간, 3) 마음을 담은 선물, 4) 행동으로 전하는 봉사, 그리고 5) 스킨십이 그 5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주로 사용하듯이 이 5가지 중 하나를 주로 써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주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사랑의 표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사랑의 표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만아들은 자기는 싫지만 아버지를 위해 일하고 둘째 아들은 한다고 했지만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사랑 표현이 어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랑은 사랑을 주는 사람의 입장보다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자기 입

장이 먼저였습니다. 만아들은 자기보다 아버지의 입장이 먼저였습니다.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 그것은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먼저일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받는 사람 먼저’라는 사랑 표현의 대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독서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사랑을 받을 우리의 입장이 먼저일 때 가능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고 돌아가신 것, 그것 또한 죄 많아 용서받아야 할 우리의 입장이 먼저였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 큰 사랑을 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선 늘 우리의 입장에서 그 사랑을 주고 또 주시니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살아봅시다. 그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좋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 먼저 고민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닮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군**

말씀 KEY WORD

생각을 바꾸어 | μεταμεληθεῖς

만아들은 분명 “싫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지요. ‘생각을 바꾸다’라고 옮긴 그리스어 동사 ‘메타메로마이’는 마음이 아파 돌아서는 일,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반복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오늘 복음은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를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만아들의 변화는 대단한 회심이나 반성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불편하고, 마땅치 않아서 발로 밟으려고 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아버지의 뜻을 실행한 아들로 판단하십니다. 반면 작은 아들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21,30). 그리스어 표현으로는, ‘예고’ 곧 ‘바로 나 자신’을 굳이 붙여 놓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주어 대명사는 강조할 때만 씁니다. 그러니까,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라며 자기를 앞세운 대답이 작은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자기 성찰이나,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옮겨진 발걸음의 문제입니다. 발로 간 사람만이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수히 바치는 수많은 기도도 실은 우리 삶의 실천 안에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제112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요약)

이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마태 18,10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제112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주제는 “이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라도”입니다.

미성년자들은 전 세계적인 이주의 흐름 안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입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쟁과 빈곤, 폭력과 환경 재난, 그리고 그 밖의 비극적 사유로 고향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 양심을 깊이 일깨우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가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마태 18,5).

모든 어린이, 모든 인간은 무한한 존엄성을 지닙니다.

궁극적으로, 한 명의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그 어린이 안에 새겨진 하느님 모습을 지키는 것입니다.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제2차 국제준비회의’가 9월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190개국에서 400여 명이 참석해 대회 준비 상황과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9월 15일 열린 ‘DID 엑스포’에는 전국 15개 교구 가운데 13개 교구가 참여했으며, 대구대교구도 홍보 부스를 마련해 교구의 신앙공동체와 청년 사목, 교구대회 프

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이번 참여는 세계의 젊은이들을 대구의 신앙공동체로 초대하고, 지역의 신앙과 문화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대구대교구는 2027 서울 WYD를 통해 세계 교회와 만나며 청년들과 함께 신앙의 기쁨을 나누고, 교구 공동체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D-305

1. 2027 서울 WYD 대구 교구대회 홈스테이 가정 2차 모집

- 기간 ~2026.10.31.(토)까지
- 신청 본당 사무실을 통해 접수해주세요. 관련 공문(천대교 2026-157) • 문의 250-3116~7

2. 2027 서울 WYD 대구 교구대회 참가신청 현황(9월 14일 기준)

- 총 3,497명_ (대)주교 24명 | 신부·부제 139명 | 수도자 78명 | 평신도 3,256명

구분	현황
국가	21개국
(대)교구	17개
수도회	4개
본당 단위 신청	7개
기타 단체 그룹	10개

신청국가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대만, 독일,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볼리비아, 불가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페루, 프랑스, 필리핀, 호주, 홍콩



백년의 기억, 천년의 희망㉔

1945년 8월,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신앙과 언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되살아나면서 일제의 탄압으로 위축됐던 교구의 가톨릭 액션과 청년운동도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주교좌 계산 성당에서는 가톨릭협회가 조직되는 등 교회도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활기를 되찾은 것은 청년들의 음악활동이었습니다. 대구의 거리에는 천주교 악대의 연주가 다시 울려 퍼졌고, 라디오에서는 성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대구 최초의 악대, 성당에서 나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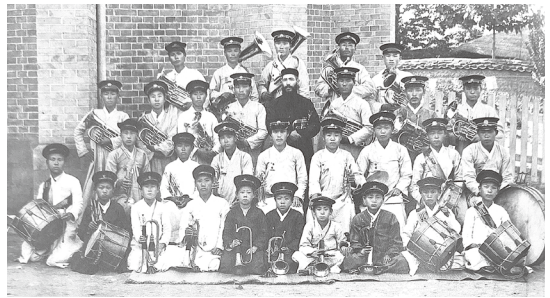
교구 문화홍보국 장성녕 안드레아

1912년 드망즈 주교는 계산본당 명도회를 통해 프랑스에서 관악기를 들여와 취주악대를 조직했습니다. 대구 지역 최초의 관악단이었습니다. 당시 명도회는 음악뿐 아니라 강연과 연극, 영화, 체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신앙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교류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제강점기 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1920~30년대 활발했던 가톨릭 청년운동은 일제의 압박으로 위축됐고, 1940년대 초 다시 모인 청년들도 해산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성가대’와 ‘천주교 악대’라는 형태로 다시 모였습니다. 선배 세대부터 중학생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했습니다. 전쟁 막바지에는 징용을 피해 청년들이 흩어지면서 활동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광복과 함께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 대구가톨릭청년회 제1회 묵상회 기념(1946.8.24)



▲ 대구 최초, 30인조 브라스밴드



▲ 천주교 악대부와 하야사가 주교

천주교 악대는 당시 대구에서 드문 서양식 브라스 밴드로 각종 행사에 초청됐고, 성가대는 대구방송국에 출연해 성가를 들려주었습니다. 성당 안에서 이어오던 음악 활동이 거리와 방송을 통해 시민들과 만난 것입니다.

오늘날 대구는 ‘음악의 도시’를 내세웁니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구의 가톨릭 청년들이 일찍부터 서양 악기로 악대를 만들고 음악을 통해 교회 밖의 세상과 만나왔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0여 년 전 대구의 가톨릭 청년들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신앙을 나누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시대와 방법은 달라졌지만 신앙의 기쁨을 세상과 나누는 교회의 역할은 오늘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구**

장마의 한가운데, 선교사들의 일상

7월 1일(화)

6월 28일 오후 3시에 평화 협상이 조인되었으므로 나는 모든 동료 신부에게 엽서를 보내고 평화를 위한 지시된 기도를 폐지시켰다.

7월 2일(수)

무세 신부가 땅 문제로 마산포로 갔다.

7월 3일(목)

무세 신부가 돌아왔다.

7월 6일(일)

무세 신부가 지난밤부터 매우 심한 설사로 고생하고 있다. 그는 몹시 쇠약해졌다. 더구나 날씨가 대단히 건강한 사람들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기운을 꺾기에는 아주 제격이다. 장마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이다. 몹시 눅눅하고, 매우 흐리며, 소나기가 잦고, 공기가 부족한데, 농사에는 매우 좋은 날씨이다.

7월 8일(화)

김 아오스딩(金承淵) 신부가 소촌(召村)으로 휴가를 보내러 떠났다. 어제 미사를 드리지 못한 무세 신부가 오늘은 좀 좋아지고 있다.

7월 9일(수)

저녁에 페셀 신부가 왔다.

7월 10일(목)

페셀 신부가 대구의 일본인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주었다.

7월 11일(금)

페셀 신부가 떠났다. 페랑 신부가 성주간 이후 사나토리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진전은 없으나 사기는 올라있는 것 같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환대'입니다.

캠 페 인
바로보기



세계청년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홈스테이 제공하기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봉사에 참여하기

본당에 처음 오는 청년들을
맞이하고 소개하기

청년들을 차별 없이
포용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2026년 한 해 동안 교구 평신도위원회에서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월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영상은 교구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동한 가롤로 신부 (1983년 9월 28일 선종) • 이성만 이냐시오 신부 (1976년 10월 3일 선종)

주간 교구 행사 및 미사안내

27 일 |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미사, 14:00 대안성당(김종강 대주교)

28 월 | 1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00 계산대성당 |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00 범어대성당 |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00 도량성당 | 성령 안에서 대화 촉진자와 서기 양성 교육 심화 과정-5대리구, 13:00 원평성당 교육관

29 화 | 구미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형곡성당 | CBCK 생태활동가 연수(10월 1일까지, 천리포 수목원)

10.1 목 | 60기 성모마리아 어머니 학교 1주차, 10:00 교구청 본관 중강의실

3 토 | 1대리구 4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태전성당 | 창조시기 폐막미사 및 토요일식탁, 11:00 성모당

2026 전국 마리아사제운동 (M.S.M.) 체나콜로 대피정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10.17.(토) 9:00-17:0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주제 빛의 사도들의 시대(메시지 161번)

강사 손무진 사도요한 신부

미사 주례 김종강 시몬 대주교

(전국 M.S.M. 사제단 공동 집전)

준비 미사도구, 묵주 *김밥 제공

문의 (010)9366-9170 / 대중교통 이용



살아 있는 물 | 2026년 창조시기 | 살아 있는 물에 잠기기 에제 47,9.12

창조시기 폐막미사 및 토요일식탁

폐막미사

10월 3일(토) 11:00, 성모당

토요일식탁

미사 후~16:00, 교구청 광장

"맛있는걸 함께 오래오래" 농부, 요리사, 수공업가들이 만들어가는 유기농시장에 초대합니다

천주교부산교구 조씨 형제 순교자 묘 이전 안내

천주교부산교구에서는 지난 9월 15일(화) 조씨 형제 순교자 묘를 '경상남도 양산시 명곡로 244, 정하상바오로영성관 관내'로 이전하였습니다.
전국 교구 순례 중인 교우분들께서는 새로운 묘소 위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 묘소 위치_ 경상남도 양산시 명곡로 244, 정하상바오로영성관 관내 ■ 문의_ (055)383-3101

■ 수도권 성소 | 피정 알림

효령하늘집 "나도 가보자~"

침묵과 관상의 개인 피정
면담과 치유 / 소그룹 피정(Pt)
미사: 주일 11:00, 수요 치유미사 16:00
문의: (054)382-0091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 2일 치유 피정

기간: 10.3(토) 14:00~4(일) 14:00
장소: 초정성령회관, (043)213-9103
강사: 김현우 신부, 김태영·고영민 회장
회비: 청소년 무료, 1박 2일(3식)
대구버스: 조명자, (010)2321-9426

대구성령봉사회 추계 성령 1일 대피정

기간: 10.24(토) 10:00~18:00, 월막피정의집
미사: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 대주교와 사제단
참가비: 1만원(20세 이하 무료)
문의: (054)954-0951 / (010)5119-5608

제주 강우일 주교 '푸른꿈 제주섬' 피정

제주섬에 씬, 올레길, 성지순례, 말씀초대
기간: 10.22~24 / 11.10~12
장소: 성이시돌피정의집 / 주최: 한통사
대상: 개인, 가족, 소단체, 본당구반장
문의: (010)9670-9775 / (010)2231-2074

이시돌 성령 치유 축복 피정

기간: 12.8(화)~10(목)
장소: 이시돌피정센터
강사: 이창진, 윤민재, 김대영, 김영철,
우직환, 차선미 / 지도: 양창우 요셉 신부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10)9503-5675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피정

기간: 12.16(수) 17:00~20(일) 15:00
장소: 제주 성이시돌피정의집
피정동반: 배영길 신부(베드로, 예수회)
주최: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신청: (064)739-0951 / 40만원

배론성지 내 '은총의성모마리아기도학교'

피정 및 대관 신청 안내
내용: 본당 혹은 단체, 필요에 따라
피정 신청 가능(위탁피정, 자체피정)
인원: 최대 160명(숙식 제공)
문의: (043)651-4563, <https://baeron.or.kr>

■ 기관 | 단체 | 일반 알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국가건강검진

정성과 세밀함으로 대학병원의
전문의료진과 함께하는 건강검진!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금 준비하
십시오. (암검진은 예약필수)
문의: 650-4591 (8:00~17:00)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전인병원

미루었던 건강검진, 지금 받으세요
검진부터 내과·재활·정형·
통증·한 의과 진료까지
문의: 1688-7667 (9:00~17:30)

천주성삼병원 보건복지부 인공의료기관

인공지능 3.0T MRI 도입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진료
중증외상센터 교수경력 전문의
척추 수술적 / 비수술적 치료
문의: 790-1000

교구 신청사 축복 기념 글과 그림전 개최

기간: 10.12(월)~16(금), 교구청 본관 L층 로비
개막식: 10.13(화) 11:00(주교님 참석)
내용: 시화, 그림 전시, 차 나눔
주관: 가톨릭문인회, 미술가회, 차인회 합동
후원: 박병규, 김도율 담당사제 작품협찬

전례꽃꽃이연구회 수료작품전

기간: 10.9(금) 10:00~10(토) 17:00
장소: 교구청 본관 신청사 로비층
문의: (010)9353-0345
모집: 제대꽃꽃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신앙과 인문학, 새로운 만남 IV

기간: 10.29~11.19(매주 목) 접속링크 발송
방식: 녹화 동영상강의
주제: 동양고전의 지혜와 그리스도교
강사: 송용만·최성준 신부, 유성호, 박찬이
문의: 한국CLC, (02)2135-9398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0.12(월)~23(금)
전형일: 11.13(금)
전공: 오르간, 작곡(CCM작곡 포함),
합창지휘 / 문의: (02)740-9876

사유원과 함께하는 문화투어

3차: 10.12(월) 15:00~14(수) 13:00
4차: 11.23(월) 15:00~25(수) 13:00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문자문의: (010)6791-0071

SPC영성상담센터 자기인식과정 1단계

개강: 10.27(화) 19:00~21:00
기간: 주1회 2시간(총 8주 16시간)
내용: 자기인식과정을 통한 영적동반 여정
비용: 30만원 / 신청: 전화 또는 면접
254-2664 / (010)3228-3330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청년셀별

성경 나눔 모임 "금은보화!"
일시: 매주 금요일 19:30
대상: 모든 2030청년



▶ 청년셀별
QR 코드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온라인 묵주 기도모임

일시: 10.3(토) 11:00 (첫토요일 11:00)
장소: 카카오톡 오픈 채팅
"온라인묵주기도모임" 검색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바오로딸 문화영성프로그램

바이블가든, 성경 속 식물과 신앙
: 김영숙 박사, 10.7(수)~ 5주 14:00~16:00
하느님의 섭리, 우리 교회사
: 김정숙 교수, 10.7(수)~ 8주 19:00~21:00
신청: (010) 6681-5185

부산교구 성령쇄신봉사회(양산 영성의집)

523차 부산교구 성령묵상회(일반)
: 10.2(금) 18:00~4(일) 17:00 / 20만원
장소: 양산 영성의집, (055)382-9465
※ 최소인원 미달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구 | 대리구 알림

10월 기도와 치유 미사

일시: 10.2(금) 19:30

장소: 신청 후 개별 안내

대상: 가족 구성원을 사별한 천주교 신자

진행: 연도 후 미사 봉헌(고해성사 가능)

신청(필수): 가정복음화국, (010)9461-3077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영수(안토니오)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시설 | 기관 알림

47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연수

설명회: 10.10(토) 14:00~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가족, 성인&실버

내용: 청소년가족캠프, 어학연수&해외봉사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대구가톨릭대 일반대학원 종교영성학과

박사학위 과정 신입생 모집

접수: 10.26(월)~11.6(금) 예정 / 월요일 강의

대상: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혜택: 성직자 수도자 100% 장학금

문의: 850-3998 / (010)6563-0409

대구가톨릭대학교 DCU 아마레 묘역

(가톨릭군위묘원 내) 기부 안내

1억5천만원: 묘기 제공

2억원: 부부묘2기 제공

비신자 신청 가능, 60년 관리

문의: 대외협력처, 850-2526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녀,

비신자 포함 / 담당: 김재우 마태오 신부

문의: 650-4442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2.2 멕시코 과달루페 (8일) 565만원

3.6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12일) 495만원

3.6 영국, 아일랜드 (11일) 610만원

문의: 428-5004 / www.cttour.org

중3 남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입시설명회

중3이 꼭 알아야 할 대입 전략

2027 순심고등학교(남고) 입학설명회

일시: 10.7(수) 18:30~

장소: 구미 근로자문화센터 시청각실(3층)

주관: 순심고등학교(칠곡군), (054)971-1222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 (FM 93.1MHz) 오늘의 강론 9월 28일(월) ~ 10월 3일(토) 6:50, 16:50, 23:50 서찬석(제르마노) 신부

병·의원 마케팅

N 상위노출·플레이스·광고심의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다담애드 1544-4080

김난영(애스텔)

Since 1963

가톨릭피부과의원

63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습진 / 무좀 / 아토피 / 건선 / 탈모 / 레이저 시술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 053) 320-2000

개원 41년

달성 피부과

●아토피·여드름·피부재활 전문케어
●보톡스·실리프팅 ●면역강화 수액요법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 김인주(레지나)

DALSUNG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DOCS KIM

도안김연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혈액투석
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림(안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주차장상반비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신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강한

속내과유외과의원

건강검진센터

위/대장 내시경 | 유방/갑상선/복부 초음파
성인병(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내과 전문의 김민근(라파엘) | 외과 전문의 김민수(라파엘라)

대구 서구 국제보성로 223 대원빌딩 3층 T. 565-7585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역임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협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혁탑빌딩 3층
청라언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백두상회

우리 동네 맛있는 습관!

살맛나는 신선함, 오늘도 백두상회

대표 허재훈 (마티아)

목.허리.어깨.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 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일 치 (안드레아)

진료과목: 흉추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아영로 46 [신암동214-4] 2층 Tel 053 954 7582

김앤신경과

두통 / 어지럼증 / 파킨슨병 / 치매
뇌혈관질환 / 손발저림·떨림 / 통증

원장 김성재(베네딕토) 신경과전문의 | 의학박사

간담역 3번 출구 053)625-8899
40m(시민약국 건물) 5층

국내·해외 성지순례 전문

11/10, 12/1 제주도 3일 11/16, 12/14 베트남 라방 5일

11/24, 12/8 홍콩-마카오 4일 11/24, 12/8 나가사키 4일

1/5 스웨덴, 포르투갈, 루르드 12일 2/22 동유럽 메추리예 12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KGB 포장이사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무료전화 080-053-1000

수술 전문 안과

더블유 W안과

053-633-0123 최우곤(펠릭스)

망막 / 백내장 / 녹내장 / 안성형
상인역 1,2번 출구 다이소 3층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외동로 142 (죽전역 3번 출구)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

VIP 여성 통합암센터

성모한방병원

365일진료 | 평일 21시까지야간진료

1인실 스위트룸 탬퍼침대 | 24시간 전문의 상주
고추마 온열치료 BSD-2000
아이백스 초대형 다인용 고압산소챔버

병원장/한의학박사 김성철(비오)
고산역 2번출구 일파시티 입구 T. 1588-3386